

이 책에 실린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기본과제연구2001-

충청남도 매장문화재 관리실태 현황 분석

이 훈



- 목 차 -

제1장 머리말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2장 충청남도 문화재 조사현황	5
제1절 충청남도 문화재조사 실태	5
제2절 매장문화재조사현황	6
제3장 문화재지정 및 정비보존 관리현황	32
제1절 충청남도 문화재 지정현황.....	32
제2절 문화재 정비보존 및 관리현황.....	41
제3절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대책.....	47
제4장 결론	55
제1절 결론.....	55
제2절 제안.....	57

참고문헌

-부록-

제1장 머리말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이다. 이제 문화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것만이 세계화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관건인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는 매우 피상적인 단어로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민족의 독특한 문화를 극명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유·무형의 ‘문화재’라고 할 수 있다.

1997년을 ‘문화유산의 해’로 지정하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문화재 연구활동이나 그와 관련된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문화재는 성격에 따라 크게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구분된다. 이러한 문화재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로 구분할 수 있다. 다시 지정문화재로는 지정 주체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사적, 사적 및 명승,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와 시·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문화재자료, 전통건축물) 등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매장문화재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매장문화재’라 함은 발굴조사를 통하여 보고된 유형문화재를 말하는데, 문화재 보호법 제 43조에 의하면 “토지·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라고 명시되어 있다¹⁾. 즉, 매장문화재는 발굴하기 전까지는 그 성격이나 형태 등이 전혀 밝혀

1 제43조 (발견신고) 토지·해저 또는 건조물등에 포장된 문화재(이하 “매장문화재”라 한다)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 또는 토지·해저나 건조물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지지 않은 것으로서 보통 건설공사 등으로 인한 토지 형질변경에서 실체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부터 전국적으로 대단위 국토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고속도로, 산업공단, 택지개발 등 대대적인 개발공사가 진행되면서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 또한 비약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였다

충청남도에서도 최근 서해안고속도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등을 비롯하여 각 시·군지역의 택지개발, 각종 SOC사업 등 국토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각각의 개발지역 내에서 학술적·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유적들이 빈번하게 발견·보고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 유적의 대부분은 현장보존이나 이전복원 등의 방법으로 보존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개발 우선 순위에 밀려 훼손되거나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유적들에 대한 합리적 보존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 최근 충청남도의 문화재 관련사업을 살펴보면 지난 1971년 공주 武寧王陵이 발굴조사된 이후 각계의 관심이 모아져 추진되어 온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주목된다. 이 사업의 시행으로 공주·부여를 중심으로 백제유적의 정비·복원을 위한 기초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부여 羅城 주변지역을 발굴조사하던 중 百濟金銅大香爐(국보 제 287호)가 발견되어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백제문화권 정비사업과 더불어 국가사적과 지방문화재 정비사업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문화재 안내판 정비,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 등이 그러한 사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획성이 부족한 문화재사업의 추진과 급속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난개발, 문화재 보존에 대한 인식부재, 경제적 지원의 미흡 등 다양한 이유로 중요한 매장문화재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목적하에 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

첫째, 충남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고고학적 성과와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현황을 파악하여 그 인식을 제고시키고,

둘째, 충청남도의 문화재 지정현황 및 보존관리실태를 분석하며,

셋째, 충청남도과 각 시·군 등 지자체의 매장문화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보존정책 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와 분석자료는 이후 충청남도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방안의 구상과 보존·복원된 매장문화재와 기존 지상문화재간의 연계성을 찾아 문화관광루트 개발 등의 발전적 문화정책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충청남도의 문화유적에 한정하며, 그 중에서도 매장문화재를 주요대상으로 한다. 여기에서 ‘매장문화재’란 충남도내에서 그 동안 진행된 문화재 지표조사와 시·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물을 제외한 모든 매장문화재를 포함한다.

시간적 범위로는 매장문화재 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1996년 이후 2001년까지 조사되었던 자료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같이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는 이유는 지난 수 십 여년간 조사된 모든 매장문화재를 분석하는 것은 양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큰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화재 자체의 시대적 성격에 있어서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를 망라하되 각종 문헌과 보고서를 통해 발표된 매장문화재(유물제외)만 다루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매장문화재는 선사·고분·성곽·요지·사지·

기타 등 보편적인 분류방법에 의한 구분을 따르도록 한다.

2. 연구방법

충남지역 매장문화재의 관리실태 분석은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에 의해 진행하기로 한다.

첫째, 그 동안 조사된 각종 문화재조사보고서 등, 기본 자료를 토대로 충남 매장문화재의 현황 및 관리 상태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작성한다.

둘째, 충청도내의 문화재 전문조사기관(국립박물관, 대학박물관, 연구법인 등)의 조사실적(지표조사, 시굴·발굴조사를 기준으로)을 정리한 후 조사성과 및 조사된 유적에 대한 사후처리 결과(현장보존, 이전복원, 기록보존 후 폐기)를 분석한다.

셋째,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토대로 효율적인 매장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매장문화재의 종합관리방안을 모색하며, 추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의 방향을 설정하면서 지상문화재와 매장문화재를 연계한 종합관리계획을 마련할 것이다.

제2장 충청남도 문화재 조사현황

제1절 충청남도 문화재 조사실태

충청남도지역에서의 문화재조사현황에 대한 연구성과는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조사는 그 동안 백제문화개발연구원²⁾에서 연차적으로 각 시·군단위로 실시했던 『忠南地域의 文化遺蹟』²⁾이 있다. 또한 각 시·군에서 市·郡志 및 文化遺蹟總攬을 간행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충청남도에서 문화유적분포지도를 제작하면서 문화재조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³⁾.

본 장에서는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각종 유적조사현황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자료는 문화재 지표조사 전문기관에서 1996년부터 2001년까지 간행한 지표조사보고서 및 시·군·발굴조사보고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충청남도 각 시·군 일대에 대한 지표조사는 여러 기관에 의해 10여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들 조사에 참여한 기관으로는 국립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⁴⁾를 비롯하여 각 대학박물관이 중심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각종 공사에 수반되는 정밀 지표조사의 경우 지표조사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현재 대전·충남에서 지표조사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곳은 대학기관이 8개, 국립박물관 2개, 국립연구소 및 전문 재단법인이 4개를 합하여 총 12개가 있

2 백제문화개발연구원에서는 공주, 부여 등을 시작으로 연기군에 이르기까지 태안, 금산군을 제외한 충남 도내의 모든 시·군을 망라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홍성군은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보고서가 미완인 상태이다

3 문화유적분포지도는 1997년부터 부여군을 비롯하여 공주, 천안, 논산, 보령, 서산, 당진, 서천, 태안 등 9개 시·군이 작성되었고, 2001년에는 예산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으며, 내용은 <표 1>과 같다⁴⁾. 이들 기관에서는 각각의 시행청으로부터 문화재 조사를 의뢰받아 각종 문화재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표 1> 대전·충남 문화재 지표조사 전문기관

충남지역(9)	대전지역(5)
공주대학교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한서대학교박물관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선문대 역사학과 유적발굴조사단 (재)충남발전연구원 (재)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충남대학교박물관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대전보건대학박물관 한남대학교백제문화박물관 국립중앙과학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학기관에서 대부분의 조사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나 서서히 전문기관 위주로 업무가 이관되는 추세이다. 발굴조사의 결과물을 보았을 때 유적의 성격(선사, 고분, 성곽, 요지, 사지, 기타)이 하나인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유적일 때, 전문인력(전공교수진 및 연구진)의 부재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전문기관의 경우 다양한 전공의 전문연구인력을 구비하여 구제발굴조사나 대규모의 학술발굴 등 국립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조사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술조사

4 이외에 그동안 충남지역에서 실시된 지표조사 및 시굴·발굴조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기관은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충북대학교, 해강도자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보호재단 등으로서 조사대상의 특수성, 혹은 대규모 조사에 일부분 담당하는 형태로 참여하였다.

등은 대학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살려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대학과 전문기관이 협력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2절 매장문화재 조사현황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방법은 크게 지표조사와 시굴·발굴조사로 나뉘어진다. 지표조사는 지표, 즉 땅 위에 드러난 유물과 유적을 찾아내는 작업을 말한다⁵⁾. 땅 속에 묻혀있는 유물과 유적들은 자연적인 지질교란 외에도 농경이나 땅파기 같은 인위적 요인에 의해서 우연히 지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지표조사란 이렇게 땅 위에 드러난 유물과 유구를 고고학자들이 직접 발과 눈으로 찾아다니면서 과거 인간의 문화적 활동증거를 수집·기록하고 분석하는 작업이며, 지표에 드러난 부분적 증거물을 통해 땅속에 남아 있을 인간 활동의 양상과 성격을 추정하게 된다. 그러나 지표조사 과정에서 찾은 고고학적 증거들은 정말 우연한 기회에 밖으로 드러난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 지표조사에서 그 흔적을 못 찾았다고 해서 땅 밑에 유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최근에는 지표조사 결과 유물이나 유적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시굴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추세이다.

시굴·발굴조사는 문화재의 정비·복원을 수행하기 이전에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학술목적의 차원에서 시행하는 학술조사와 개발과정에서 형질변경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구제조사로 구분된다. 이러한 조사는 모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발굴조사는 시굴조사와 발굴조사의 2단계로 나뉘어지는데, 시굴조사란 조사대상지역에 Trench나 Pit를 설치하여 유적의 존재여부와 규모를 확인하는 작업⁶⁾으로 대상지역 혹은 그 주변에서 유물이나 유적의 흔적이 확인되었을 때

5 鈴木宋雄 著, 尹煥 譯註, 1994, 『考古學入門』, 學研文化社.

6 上掲書.

실시하며, 비록 지표상에서 유적의 흔적을 찾지는 못했지만 입지조건으로 보아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을 때에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시굴조사를 통해서 유적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며, 유적의 전모와 내부 상황을 개략적으로 파악하는데 그치는데, 발굴조사는 이러한 시굴조사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유적의 성격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문화재적인 가치를 찾아내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1. 지표조사현황

지표조사는 일반적으로 일반 학술지표조사와 개발에 따른 정밀지표조사로 나눌 수 있다. 이중에서 학술지표조사는 문화유적분포지도의 제작과 같은 일반적인 고고, 역사, 민속 등의 자료를 총괄하는 학술목적의 지표조사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고분, 성곽 등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방법도 있다. 개발에 따른 정밀지표조사는 각종 건설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문화재조사로서 고속도로, 택지개발, 댐 건설, 공단조성 등을 위해 공사지역 내에 존재하는 문화재를 조사하여 학술연구 및 발굴조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두 가지 지표조사 모두 조사 방식은 크게 다를 바 없으나 후자의 경우는 말 그대로 더욱 정밀하게 조사가 진행되며 조사 결과의 활용방식 면에서 차이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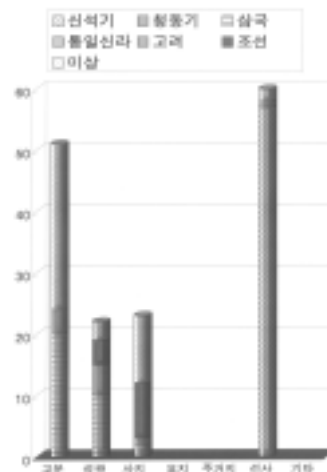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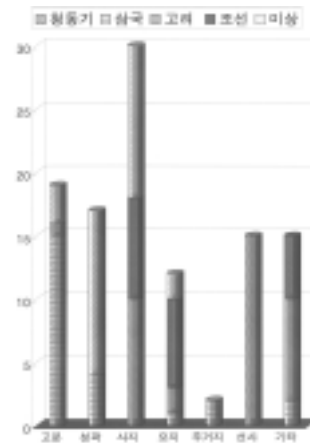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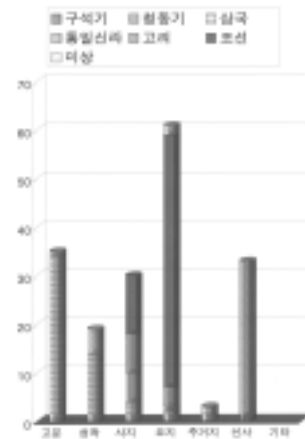
1) 학술지표조사

학술지표조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고고·역사분야의 유적이나 민속 등을 조사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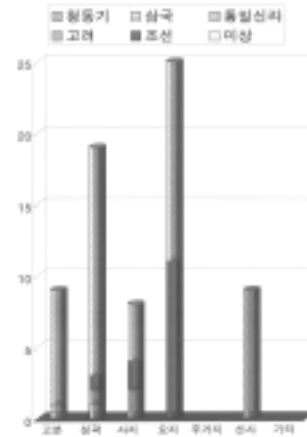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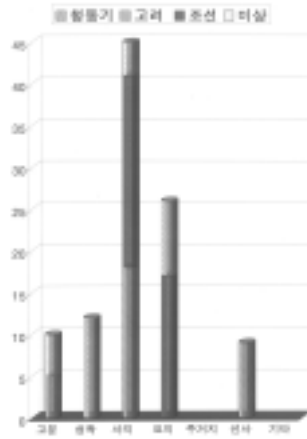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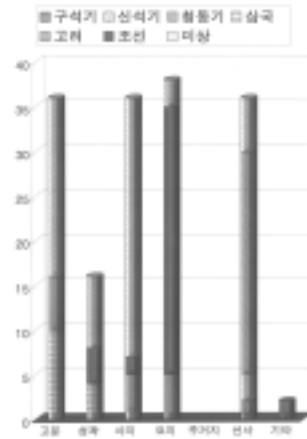
조사된 유적은 각각 시대적 차이, 유적의 성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적인 분류방법에 따라 나뉘어진다. 즉, 향교, 비, 탑, 사찰건물 등 지상문화재와 천연기념물, 민속자료, 불교유적 그리고 고인돌, 성곽, 고분, 요지, 주거지, 유물산포지 등 매장문화재가 바로 그것이다.

<표 2> 시·군의 시대별 문화재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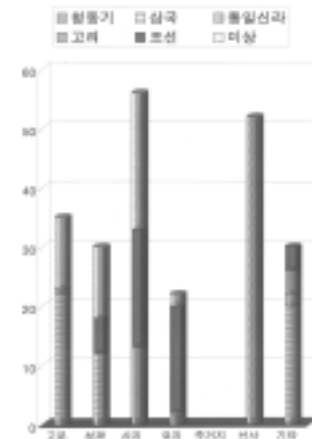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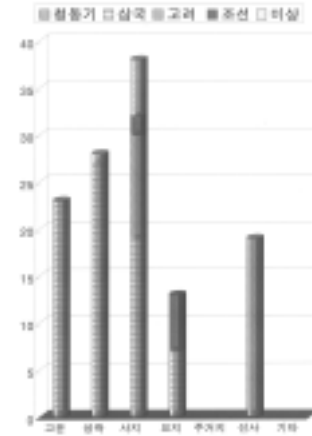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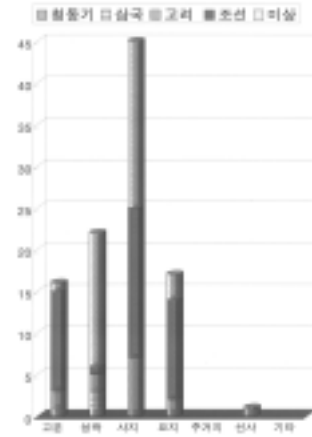
번호	지역	유적	시대	수량	지역별(%)	유적별(%)
1	공주	고분	삼국초기	2	5.71	0.50
			삼국	32	91.42	8.06
			통일신라	1	2.85	0.25
		성곽	삼국초기	1	5.26	0.36
			삼국	13	68.42	4.79
			미상	5	26.31	1.84
		사지	삼국	4	13.33	0.75
			통일신라	6	20.00	1.12
			고려	8	26.66	1.50
			조선	12	40.00	2.25
		요지	삼국초기	1	1.63	0.23
			삼국	1	1.63	0.23
			통일신라	1	1.63	0.23
			고려	4	6.55	0.93
			조선	52	85.24	12.12
			미상	2	3.27	0.46
		주거지	삼국	3	100	60.00
		선사	구석기	1	3.03	0.26
			청동기	32	96.96	8.48
2	논산	고분	삼국	15	78.94	3.77
			고려	1	2.04	0.25
			미상	3	15.78	0.75
		성곽	삼국	4	23.52	1.47
			미상	13	76.47	4.79
		사지	고려	10	33.33	1.87
			조선	8	26.66	1.57
			미상	12	40	2.25
		요지	삼국	1	8.33	0.23
			고려	2	16.66	0.46
			조선	7	58.33	1.65
			미상	2	16.66	0.46
		주거지	삼국	2	100	40.00
		선사	청동기	15	100	3.97
			삼국	2	13.33	3.84
3	보령	고분	삼국	20	39.21	5.03
			고려	4	7.84	1.00
			미상	27	52.94	6.80
		성곽	삼국	10	45.45	3.69
			고려	5	22.72	1.84
		기타	삼국	2	13.33	3.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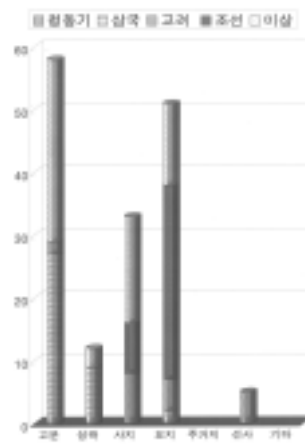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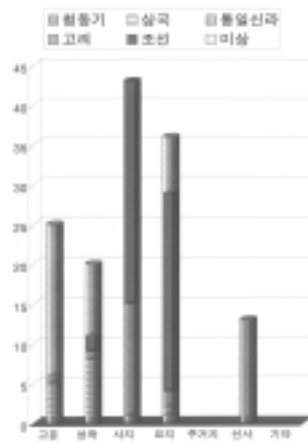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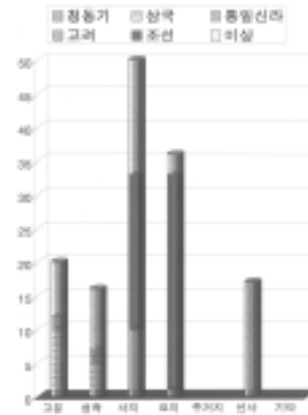
3	보령	성곽	22	조선	4	18.18	1.47
				미상	3	13.63	1.10
		사지	23	통일신라	2	8.69	0.37
				고려	1	4.34	0.18
				조선	9	39.13	1.68
				미상	11	8.69	2.06
		선사	60	신석기	57	95.00	15.11
청동기	1			1.66	0.26		
미상	2			3.33	0.53		
4	서산	고분	36	삼국	10	27.77	2.51
				고려	6	16.66	1.51
				미상	20	55.55	5.03
		성곽	16	삼국	4	25.00	1.47
				조선	4	25.00	1.47
				미상	8	50.00	2.95
		사지	36	삼국	1	2.77	0.18
				고려	4	11.11	0.75
				조선	2	5.55	0.37
				미상	29	80.55	5.44
		요지	38	고려	5	13.15	1.16
				조선	30	78.94	6.99
				미상	3	78.94	0.69
		선사	36	구석기	2	5.55	0.53
				신석기	3	8.33	0.79
				청동기	25	69.44	6.63
				미상	6	16.66	1.59
		기타	2	조선	2	100	3.84
5	아산	고분	10	고려	5	50.00	1.25
				미상	5	50.00	1.25
		성곽	12	미상	12	100	4.42
		사지	45	고려	18	40.00	3.37
				조선	23	51.11	4.31
				미상	4	8.88	0.75
		요지	26	조선	17	65.38	3.96
				미상	9	34.61	2.09
선사	9	청동기	9	100	2.67		
6	천안	고분	29	삼국	12	41.37	3.02
				고려	3	10.34	0.75
				미상	14	48.27	3.52
		성곽	22	삼국	14	63.63	5.16
				미상	8	36.36	2.95
				고려	14	48.27	2.62
				조선	4	13.79	0.75
				미상	11	37.93	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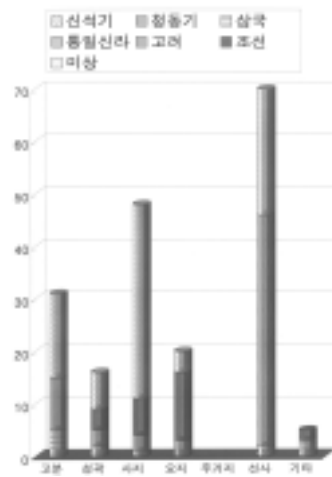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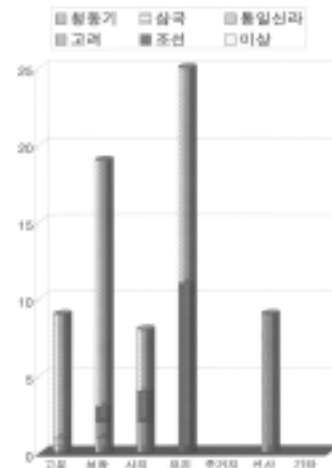
6	천안	요지	36	고려	7	19.44	1.63
				조선	26	72.22	6.06
				미상	3	8.33	0.69
		선사	7	청동기	7	100	1.63
7	당진	고분	16	삼국	1	6.25	0.25
				고려	2	12.5	0.50
				조선	12	75.00	3.02
				미상	1	6.25	0.25
		성곽	22	삼국	3	13.63	1.10
				고려	2	9.09	0.73
				조선	1	4.54	0.36
				미상	16	72.72	5.90
		사지	45	고려	7	15.55	1.31
				조선	18	40.00	3.37
				미상	20	44.44	3.75
		요지	17	고려	2	11.76	0.46
				조선	12	70.58	2.79
				미상	3	17.64	0.69
		선사	1	청동기	1	100	0.23
8	부여	고분	23	삼국	23	100	5.79
		성곽	28	삼국	27	96.42	9.96
				미상	1	3.57	0.36
		사지	38	삼국	19	50.00	3.56
				고려	11	28.94	2.06
				조선	2	5.26	0.37
				미상	6	15.78	1.12
		요지	13	삼국	7	53.84	1.63
				조선	6	46.15	1.39
		선사	19	청동기	19	100	5.03
9	서천	고분	35	삼국	22	62.85	5.54
				고려	1	2.85	0.25
				미상	12	34.28	3.02
		성곽	30	삼국	12	40.00	4.42
				조선	6	20.00	2.21
				미상	12	40.00	4.42
		사지	56	고려	13	23.21	2.43
				조선	20	35.71	3.75
				미상	23	41.07	4.31
		요지	22	삼국	1	4.54	0.23
				고려	1	4.54	0.23
				조선	18	81.81	4.19
				미상	2	9.09	0.46
		선사	52	청동기	52	100	13.79
		기타	30	삼국초기	9	30.00	17.30



9	서천	기타	30	삼국	11	36.66	21.15
				통일신라	2	6.66	3.84
				고려	4	13.33	7.69
				조선	4	13.33	7.69
10	연기	성곽	16	삼국	5	31.25	1.84
				통일신라	1	6.25	0.36
				고려	1	6.25	0.36
				미상	9	56.25	3.32
		사지	50	고려	10	20.00	1.87
				조선	23	46.00	4.31
				미상	17	34.00	3.18
		요지	36	고려	1	2.77	0.23
				조선	32	88.88	7.45
				미상	3	8.33	0.69
11	예산	고분	25	삼국	5	20.00	1.25
				고려	1	4.00	0.25
				미상	19	76.00	4.78
		성곽	20	삼국	8	40.00	2.95
				고려	1	5.00	0.36
				조선	2	10.00	0.73
				미상	9	45.00	3.32
		사지	62	삼국	1	16.12	0.18
				고려	14	22.58	2.62
				조선	28	45.16	5.25
				미상	19	30.64	3.56
		요지	36	삼국	1	2.77	0.23
				통일신라	1	2.77	0.23
				고려	2	5.55	0.46
				조선	25	69.44	5.59
				미상	7	19.44	1.63
		선사	13	청동기	13	100	3.44
12	청양	고분	58	삼국	27	46.55	6.80
				고려	2	3.44	0.50
				미상	29	50.00	7.30
		성곽	12	삼국	9	75.00	3.32
				미상	3	25.00	1.10
		사지	33	고려	8	24.24	1.50
				조선	8	24.24	1.50
				미상	17	51.51	3.18
		요지	51	삼국	2	3.92	0.46
				고려	5	9.80	1.16
				조선	31	60.78	7.22
				미상	13	25.49	3.03



12	청양	선사	5	청동기	5	100	1.32
13	홍성	고분	9	삼국	1	11.11	0.25
				미상	8	88.88	2.01
		성곽	19	통일신라	1	5.26	0.36
				고려	1	5.26	0.36
				조선	1	5.26	0.36
				미상	16	84.21	5.90
		사지	8	고려	2	25.00	0.37
				조선	2	25.00	0.37
				미상	4	50.00	0.75
		요지	25	조선	11	44.00	2.56
				미상	14	56.00	3.26
		선사	9	청동기	9	100	2.38
14	태안	고분	31	삼국	5	16.12	1.25
				고려	10	32.25	2.51
				미상	16	51.61	4.03
		성곽	16	삼국	2	12.50	0.73
				고려	3	18.75	1.10
				조선	4	25.00	1.47
				미상	7	43.75	2.58
		사지	48	통일신라	1	2.08	0.18
				고려	3	6.25	0.56
				조선	7	14.58	1.31
				미상	37	77.08	6.94
		요지	20	고려	3	15.00	0.69
				조선	13	65.00	3.03
				미상	4	20.00	0.93
		선사	70	신석기	2	2.85	0.53
				청동기	44	62.85	11.67
				미상	24	34.28	6.36
		기타	5	삼국	3	60.00	5.76
				조선	2	40.00	3.84



<표 3> 충남의 분야별 유적 합계

구분	고분	사지	요지	성곽	선사	기타	주거지	계
계	397	533	429	271	377	52	5	2,064

이렇게 광범위한 문화유적의 조사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근 문화재청과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문화유적분포지도”작성 작업이다. 이는 대학이나 전문기관에서 각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 및 매장문화재를 포함하여 지표 상에 드러나 있는 각종 문화재를 조사하는 것으로 천연기념물, 민속자료 등도 포함하는 종합적인 문화재 조사이다. SOC사업이나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 제작 중인 문화유적분포지도는 모든 문화재를 1/5,000 지도에 표시하는 작업으로 문화재의 분포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된 충청남도 모든 시·군의 매장문화재를 총정리한 결과 <표 2>와 같다⁷⁾.

2) 개발에 따른 정밀지표조사

최근 충청남도에서는 서해안고속도로를 비롯하여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등의 각종 SOC사업으로 인한 국토개발이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택지개발을 비롯한 토지구획정리, 각종 공단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발과 문화재 보존이라는 양면성은 항상 상치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일환으로 문화재지표조사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그 동안 학술지표조사를 통하여 충남지역의 다양한 문화재의 분포양상이 지도상에 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약식으로 조사된 부분이 많아 정확한 유적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로 인해 각종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정밀지표조사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학술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의 경우에 있어서는 개발계획을 세우는데 있어 많은 부분이 참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밀지표조사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형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문화유

7 매장문화재는 일반적인 분류대로 선사유적, 고분, 관방유적, 요지, 유물산포지, 불교유적, 기타로 구분하였으며, 유물은 제외하였다. 금산군은 그동안 조사된 자료가 충분치 않아 포함하지 않았다.

적의 존재여부를 事前에 조사함으로써 매장문화재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또한 유적에 대한 시굴·발굴조사 등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유적에 대한 현황을 기록으로 남겨 보존하며, 나아가 보존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는 선사시대의 구석기유적에서부터 최근에 조성된 각종의 문화유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간 축과 문화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또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하여 실시된다. 특히 이들 매장문화재는 지상의 조영물보다는 대부분 지하에 남아 있어 지표면에서 외형상으로 파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문화유적은 어떠한 당위성에서도 무계획적으로 파괴·훼손되는 것은 방지되어야 한다.

충청남도 문화재 지표조사 전문기관의 지표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표 3>와 같다.

<표 3> 문화재 지표조사 현황(1996~2001년 9월 현재)

조 사 기 관	조 사 명	조사 년도	조사 목적	후속 조치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당진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1996	학술	
공주대학교박물관	태안 소근진성 지표조사	1996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부여지방 백제고분조사Ⅳ(부여군 일대)	〃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부여지방 백제고분조사Ⅴ(초촌면, 석성면 일대)	1997	〃	
〃	화지산 일대 유적 지표조사	〃	〃	
〃	부여지방 백제고분조사Ⅵ(외산면, 임천면 일대)	1998	〃	
〃	부여지방 백제고분조사Ⅶ(충화면, 양화면 일대)	1999	〃	
〃	부여지방 백제고분조사Ⅷ(장암면, 세도면 일대)	2000	〃	
대전보건대학박물관	공주학봉리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용역	1999	〃	
〃	황산벌 전적지 학술조사 용역	〃	〃	

조 사 기 관	조 사 명	조사 년도	조사 목적	후속 조치
충남발전연구원	공주지역 산성조사	1998	학술	
〃	서산시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	〃	〃	
〃	신창학성 지표 및 실측조사	〃	〃	
〃	논산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1999	〃	
〃	예산 임존성 문화유적 지표조사	〃	〃	
〃	부여 나성 복원정비 지표조사	2000	〃	
〃	천안 개천사지 문화유적 지표조사 연구	〃	〃	
〃	계백장군 유적지 지표조사 연구	〃	〃	
〃	서천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연구용역	〃	〃	
〃	예산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2001	〃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건지산성 정밀지표조사	1997	〃	
한남대학교박물관	금산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2000	〃	
한서대학교박물관	태안군 고남면 지표조사	1997	〃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서해안 고속도로(당진~서천간) 지표조사	1996	개발	완료
〃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건설구간 지표조사	〃	〃	〃
〃	천안 성환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 지표조사	1999	〃	〃
〃	천안 성환-입장간 도로공사 및 포장공사 구간 지표조사	2000	〃	〃
공주대학교박물관	연기 운주산성 지표조사	1997	개발	발굴
〃	공주청룡아파트 부지내 지표조사	〃	〃	완료
〃	신관동 주택건설 사업부지내 지표조사	〃	〃	〃
〃	대산지방 산업단지 조성부지내 지표조사	〃	〃	발굴
〃	현대전자 부지내 지표조사	〃	〃	완료

조 사 기 관	조 사 명	조사 년도	조사 목적	후속 조치
공주대학교박물관	공주 월송동 토취장 부지내 지표조사	1997	개발	완료
〃	천안시 신당동 아파트 부지내 지표조사 시작	〃	〃	〃
〃	공주 봉곡리 반포빌리지 조성부지내 지표조사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원 부지내 지표조사	〃	〃	〃
〃	공주-정안간 도로부지 지표조사	〃	〃	발굴
〃	우성-종촌간 도로부지 지표조사	〃	〃	〃
〃	충청남도 종축장조성부지 지표조사	1998	〃	〃
〃	천안 백석, 당진 원당지구택지내 지표조사	〃	〃	〃
〃	영인-둔포 도로공사구간내 지표조사	〃	〃	〃
〃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부지내 지표조사	〃	〃	〃
〃	홍성의료원 신축공사 사업지구내 지표조사	〃	〃	완료
〃	공주-이인간 도로공사구간내 지표조사	〃	〃	발굴
〃	D-1 비축기지 건설사업부지내 지표조사	〃	〃	〃
〃	천안 새천안 번영로 지표조사	〃	〃	〃
〃	태안동남지구 토지구획 정리부지 지표조사	〃	〃	〃
〃	예산 충청남도 농업종합센터 조성공사부지내 지표조사	〃	〃	완료
〃	공주-서천간고속도로(종산-서천)건설사업부지 내 지표조사	1999	〃	발굴
〃	동부간선도로 확·포장공사부지 지표조사	〃	개발	완료
〃	서천-홍산, 청남-홍산구간고속도로부지 지표조 사	〃	〃	발굴
〃	태안 해안관광도로 부지 지표조사	〃	〃	〃
충남대학교박물관	아산 서남대학교부지내 지표조사	〃	〃	완료
〃	천안 성민대학 신축부지 지표조사	〃	〃	〃

조 사 기 관	조 사 명	조사 년도	조사 목적	후속 조치
충남대학교박물관	부여 두곡리 토사채취장 지표조사	1999	개발	완료
〃	천안 상록 골프장 증설지역내 지표조사	2000	〃	발굴
〃	부여 사산리 토사채취장내 지표조사	〃	〃	〃
〃	논산 한밭 컨트리클럽 개발부지 지표조사	〃	〃	완료
〃	부여 백제큰길 연결도로 지표조사	2001	〃	발굴
〃	음봉-영인간 국도확장구간 지표조사	〃	〃	〃
충남대백제연구소	천안-논산간고속도로 휴게소부지 지표조사	1999	〃	〃
〃	서산-성연간 도로확장지역 지표조사	〃	〃	〃
〃	논산 동부농협 건조저장시설부지 지표조사	2000	〃	완료
〃	천안-논산고속도로 농지변경지역 지표조사	〃	〃	발굴
충남발전연구원	공주 - 서천간 고속도로 구간내 지표조사	1997	〃	〃
〃	천안 불당택지개발사업지구내 지표조사	1999	〃	〃
〃	천안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지표조사	2000	〃	완료
〃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부지 지표조사	〃	〃	〃
〃	공주 유구농공단지 편입 예정부지 지표조사	〃	〃	〃
〃	부여 세도면 토사채취 예정부지 지표조사	〃	〃	〃
〃	부여 초촌 토석채취 예정부지 지표조사	〃	〃	〃
〃	부여 석성 토사채취장 예정부지 지표조사	〃	〃	〃
〃	부석-서부간 국지도 공사구간 지표조사	2001	〃	〃
〃	부여 은산우회도로공사예정부지 지표조사	〃	〃	발굴
〃	홍성남부 우회도로 예정부지 지표조사	〃	〃	〃
〃	논산 강청리 토사채취장 예정부지 지표조사	〃	〃	완료
〃	천안 목천 한문화학원 단학대학원 지표조사	〃	〃	〃
〃	부여 석성우회도로 개설공사부지 지표조사	〃	〃	발굴

조 사 기 관	조 사 명	조사 년도	조사 목적	후속 조치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서공주-예산간)건설사업 지표조사	1997	개발	발굴
〃	아산 인주지방산업단지 토사채취장 지표조사	〃	〃	〃
〃	홍산-구룡간도로 공사구간 지표조사	〃	〃	〃
〃	공주 금암그린임대주택사업부지 지표조사	〃	〃	완료
〃	부여 반산리 농지조성사업부지 지표조사	1998	〃	〃
〃	부여 쌍북리 주택조성사업부지내 지표조사	〃	〃	〃
〃	공주 웅진동 주택조성사업부지내 지표조사	〃	〃	〃
〃	반포-공암간 도로공사구간내 지표조사	〃	〃	발굴
〃	공주시 금학동 임대공동주택건설 지표조사	〃	〃	완료
〃	장항선 천안-군산간 개량사업 지표조사	〃	〃	발굴
〃	공주 송학리 임대연립주택부지 지표조사	1999	〃	완료
〃	두마-반포간도로 공사구간 지표조사	〃	〃	발굴
〃	부여동사리·두곡리 토취장부지내 지표조사	〃	〃	완료
〃	공주시 정안면 인풍리 휴게소부지 지표조사	〃	〃	〃
〃	공주 웅진동 근린생활 시설부지 지표조사	2000	〃	〃
〃	공주 금암 그린임대아파트 2차 신축부지내 지 표조사	〃	〃	〃
〃	천안유통단지 문화재 지표조사	〃	〃	발굴
〃	신평-우성간 도로공사 구간내 지표조사	〃	〃	〃
〃	둔포-성환간도로공사구간내 지표조사	〃	〃	〃
〃	청양 우회도로공사구간내 지표조사	〃	〃	〃

조 사 기 관	조 사 명	조사 년도	조사 목적	후속 조치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부여군 석성면 아파트 신축부지내 지표조사	2000	개발	완료
〃	서산-운산, 운산-당진간도로공사구간내 지표조사	〃	〃	발굴
〃	덕산-예산 도로공사구간내 지표조사	〃	〃	〃
〃	부여관광호텔 신축예정부지내 지표조사	〃	〃	완료
〃	천안-병천간 도로공사구간내 지표조사	2000	〃	발굴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천안 종합체육시설부지 지표조사	1998	〃	〃
〃	서해안 고속도로 웅천IC구간	1999	〃	〃
〃	부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집관로 매설구간 지표조사	2001	〃	완료
〃	부여 종합체육시설 조성부지	〃	〃	〃
〃	부여 규암우회도로구간 예정구간	〃	〃	〃
〃	보령 국도대체우회도로 예정구간	〃	〃	〃
한서대학교 박물관	서산 음암면 부산리 지표조사	1999	〃	〃
〃	아산 공업용 수도사업지구내 지표조사	2000	〃	〃
〃	서산 무장리 주택건설부지 지표조사	〃	〃	〃
〃	서산 왕정, 일람리주택건설부지내 지표조사	〃	〃	〃
〃	서산 일람리 석산개발공사 구역 내 지표조사	〃	〃	〃
한서대학교박물관	한서대학교 항공 해양대학지구내 지표조사	2000	개발	완료
〃	서산 석남동 주택건설사업지구내 지표조사	2001	〃	〃
〃	서산 인지면 둔당리 문화유적 지표조사	〃	〃	〃

<표 4> 최근 6년간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현황

연도	학술지표조사	개발을 위한 지표조사
1996	3	2
1997	4	16
1998	4	17
1999	5	17
2000	6	28
2001	1	14
계	23	94

<표 5> 지표조사건의 후속조치 현황(학술지표조사 제외)

구 분	건수	%
지표조사에서 발굴(시굴)조사로 이어진 건	42	44.7
지표조사로 완료된 건	52	55.3
합 계	94	100

위의 <표 4>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학술지표조사에 비해 개발을 위한 정밀지표조사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고, 또 지역적으로는 관광지, 산업부지, 도로개설 등의 이유로 도시 개발이 왕성하게 이루어진 지역에 조사가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개발을 위한 지표조사는 문화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굴·발굴조사로 이어지면서 가끔 중요한 문화재를 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한다. 따라서 개발을 위한 지표조사의 경우 매장문화재의 조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적 및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 중에는 아직까지 그 정확한 성격이 파악되지 않은 것이 많다. 또한 각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문

화재에 대한 정비·복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소한의 학술조사를 통한 성격규명에 대한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에 들어서면서 점차 개선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예로 唐津의 沔川邑城⁸⁾, 牙山 新昌의 鶴城山城⁹⁾, 禮山 任存城¹⁰⁾ 등 중요유적에 대한 정밀한 학술지표 조사가 실시된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학술지표조사가 체계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의 정비·복원에 있어 기초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충분한 지원을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발굴조사 현황

발굴조사는 크게 학술발굴조사와 구제발굴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학술발굴조사는 조사기관이 연구목적을 위해서 독자적으로 조사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적이나 지방문화재 등으로 지정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학술연구를 통해 유적의 성격과 문화재적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정비보존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구제발굴조사는 각종 건설사업을 위해 추진된 정밀지표조사 및 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에 대해 실시되는데, 학술발굴조사와 마찬가지로 유적의 성격과 문화재적 가치를 조명하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으나, 조사 결과에 따라 유적의 보존과 공사진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

최근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충남지역에서 시행된 문화유적 발굴조사는 다음의 <표 6>와 같다.

8 沈正輔·李達勳·姜鐘元, 1999, 『沔川邑城』, 大田産業大學校 郷土文化研究所·唐津郡.

9 牙山市·忠南發展研究院, 1999, 『牙山 鶴城山城』.

10 禮山郡·忠南發展研究院, 2000, 『禮山 任存城』.

<표 6> 문화재 시굴조사현황(1996~2001년 9월 현재)

조사기관	조사명	조사 년도	조사 목적	비고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공주 학봉리 청량사지 시굴조사	1997	정비	
〃	서해안 고속도로(당진~서천간) 시굴조사	〃	개발	
〃	국도4호선 부여-논산간 도로공사구간내 시굴조사	〃	〃	
공주대학교박물관	공주 산성동 택지개발지 시굴조사	〃	〃	
〃	천안 용원리 온천부지내 시굴조사	〃	〃	
〃	공주 신관동 제·라 회맹단지 시굴조사	〃	학술	
〃	남양유업 천안공장 건설부지내 시굴조사	〃	개발	
〃	공주-이인간 도로공사 부지내 시굴조사.	1998	〃	
〃	태안 동남지구 토지구획정리부지내 시굴조사	〃	〃	
〃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이전부지내 시굴조사	〃	〃	
〃	새천안 번영로 문화유적 시굴조사	1999	〃	
〃	논산-부여간 도로확장부지내 시굴조사	〃	〃	
〃	부여-논산간 도로공사 구간내 시굴조사	〃	〃	
〃	천안 백석동 택지개발지구 시굴조사	2000	〃	
충남대학교박물관	당진 합덕 제 1차 시굴조사	1997	〃	
〃	아산 테크노컴플렉스 조성지구내 시굴조사	1999	〃	
〃	부여 군수제 시굴조사	2000	〃	
〃	천안 상록 골프장 증설지역내 시굴조사	〃	〃	
〃	구룡-부여간 시굴조사(1차)	〃	〃	

조사기관	조사명	조사 년도	조사 목적	비고
충남대학교박물관	구룡-부여간 시굴조사(2차)	2000	개발	
충남발전연구원	부여 고란사 선착장 호안공사 예정지 시굴조사	2001	〃	
〃	부여 오천결사대충혼탑건립부지내 시굴조사	〃	〃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부여-논산간 도로공사 구간내 시굴조사	〃	〃	
〃	천안 신당동 아파트 건설부지내 시굴조사	〃	〃	
〃	부여논터리 한솔PCS기지국 설치부지내 시굴조사	1998	〃	
〃	부여 합정리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부지내 시굴조사	〃	〃	
〃	영인-둔포간 도로공사구간내 시굴조사	〃	〃	
〃	반포-봉암간 도로공사구간내 시굴조사	〃	〃	
〃	공주 동혈사지 시굴조사	〃	정비	
〃	두마-반포간 도로공사구간내 시굴조사	1999	개발	
〃	공주 동부간선도로구간내 시굴조사	〃	개발	
〃	부여 무량사주변 경내 시굴조사	2000	정비	
〃	천안유통단지 문화제시굴조사	〃	개발	
〃	해미 도시계획도로공사구간내 시굴조사	〃	〃	
〃	서산 석남지구 시굴조사	2001	〃	

<표 7> 문화재 발굴조사현황(1996~2001년 9월 현재)

조사기관	조사명	조사 년도	조사 목적	비고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보령 관창리유적 발굴조사	1996	개발	
〃	천안 석곡리 선사유적 발굴조사	1997	〃	
〃	서해안고속도로(당진~서천간) 6공구 발굴조사	1999	〃	
〃	천안북부 제1·2지구 A지구 발굴조사	〃	〃	
〃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건설구간내 제5지역 발굴조사	〃	〃	
공주대학교 박물관	백제문화권개발(백제큰길)도로 건설예정 구 간내 발굴조사(분강·저석리 고분군)	1996	개발	
〃	(주)에스원 연수원부지 매장유적 발굴조사	〃	〃	
〃	웅진동 고분군 긴급수습발굴조사	〃	〃	
〃	상왕동·능치 시굴 및 발굴조사	〃	학술	
〃	공주 주미동 주미사지 발굴조사	1997	정비	
〃	연기군 운주산성 발굴조사	〃	〃	
〃	천안 북부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시굴조사	1998	〃	
〃	청양 정산면 충남중축장부지 시굴조사	〃	〃	
〃	대통사지 시굴조사	1999	정비	
〃	천안 용원리 온천부지내 발굴조사	1998	개발	일부 보존
〃	탄천 우회도로공사 구간내 발굴조사	〃	〃	
〃	공주 산의리 발굴조사(1차)	〃	〃	
〃	천안 새천안 번영로 발굴조사	1999	〃	
〃	천안 두정동 발굴조사	〃	〃	일부 보존

조사기관	조 사 명	조사 년도	조사 목적	비고
공주대학교 박물관	청양 정산 충남종축장 이전부지 발굴조사	1999	개발	
〃	공주 산의리 발굴조사(2차)	〃	〃	
〃	공주 안영리 발굴조사	〃	〃	
〃	공주 태봉동 발굴조사	〃	〃	
〃	부여 염창리 발굴조사	〃	〃	보존
〃	공주 가교리 토기요지 발굴조사	2000	〃	
국립공주박물관	정지산 유적 발굴조사	1996	〃	보존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부여 부소산성 발굴조사	〃	정비	
〃	부여 궁남지유적 발굴조사	〃	〃	
〃	부여 능산리고분군 발굴조사	〃	개발	보존
〃	서천 당정리유적 발굴조사	〃	〃	
〃	부여 궁남지유적 발굴조사	1997	정비	
〃	부여 부소산성 발굴조사	〃	〃	
〃	〃 〃	1998	〃	
〃	부여 궁남지유적 발굴조사	〃	〃	
〃	〃 〃	1999	〃	
〃	부여 궁남지유적 발굴조사	〃	〃	
〃	부여 전통문화학교 대상부지 발굴조사	〃	개발	
〃	부여 오수차집관로 매설지역 발굴조사	〃	〃	
〃	부여 화지산유적 발굴조사	2000	〃	보존
〃	부여 부소산성 발굴조사	〃	정비	
〃	부여 궁남지유적 발굴조사	〃	〃	
〃	부여 부소산성 발굴조사	2001	〃	
국립부여박물관	부여 능사지 발굴조사	1999	〃	

조사기관	조사명	조사 년도	조사 목적	비고
국립부여박물관	부여 능사지 발굴조사	2000	정비	
〃	〃 〃	2001	〃	
대전보건대학박물관	청양 관현리 가마터 발굴조사	1996	개발	
〃	부여-청남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2000	〃	
〃	부여-청남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2차)	〃	〃	
충남대학교박물관	천안 쌍용지구 주거유적 발굴조사	1996	〃	
〃	보령 성주사지 6차 발굴조사	〃	정비	
〃	천안 신평리 유적 발굴조사	1997	개발	
〃	부여 쌍북2택지개발지구 발굴조사	1998	〃	
〃	논산 석성 수당교 발굴조사	〃	〃	
〃	보령진죽리 유적 발굴 조사	〃	〃	
〃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구간내 정지리유적 발 굴조사	2000	〃	
〃	천안 상록 골프장 증설지역내 발굴조사	2000	〃	
〃	아산 테크토클러스지방산업단지내 발굴조 사	2001	〃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금산 수당리유적 발굴조사	1999	〃	
〃	부여 동나성·서나성 발굴조사	2000	정비	
〃	화산동 고인돌 이전복원공사	〃	개발	이전 복원
〃	서해안고속도로 당진-서천간 발굴조사	〃	〃	
〃	국도4호선 부여-논산(논산 원북리)간 확·포 장공사 구간내 문화유적 긴급수습조사	〃	〃	
〃	공주시 금학동 임대공동주택건설사업부지 발굴조사	〃	〃	
충남발전연구원	부여 성흥산성 발굴조사	1996	정비	

조사기관	조사명	조사 년도	조사 목적	비고
충남발전연구원	천안 양곡리 문화유적 발굴조사	1996	개발	
〃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부지내 발굴조사	2000	〃	
〃	천안-논산간고속도로휴게소부지 발굴조사	〃	〃	보존
〃	아산 구성리 폐기물매립시설부지 시·발굴조사	2001	〃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국도36호선(보령-청양간)우회도로발굴조사	1997	개발	
〃	공주-종촌간 국도 확포장공사 및 토취장내 시굴 및 발굴조사	〃	〃	
〃	해미읍성 객사지 및 내아지 발굴조사	〃	정비	
〃	서산 대죽리 대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내문화유적 시굴·발굴조사	〃	개발	
〃	서산 무장리서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내 문화유적 시굴 및 발굴조사	〃	〃	
〃	천안 온천관광지 조성부지(a지구)발굴조사	〃	〃	
〃	국도 36호선 공주-종촌간(공주귀산리)국도확포장공사 구간내 발굴조사	1998	〃	
〃	영인-둔포간 도로공사부지내 발굴조사	〃	〃	
〃	천안북부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부지내 발굴조사	〃	〃	
〃	천안-논산간고속도로(17·19공구)건설구간내 발굴조사	1999	〃	
〃	보령 관당도로구간 발굴조사	〃	〃	
〃	서천 견지산성 유적발굴조사	〃	정비	
〃	정안-행정간 도로공사구간내 발굴조사	〃	개발	
〃	반포-봉암간 도로공사구간내 발굴조사	〃	〃	

조사기관	조사명	조사 년도	조사 목적	비고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부여-논산(부여구간)간 도로공사구간내 시굴 및 발굴조사	1999	개발	
〃	서천-송내리 장항-서천간 도로공사구간내 발굴조사	〃	〃	
〃	부여-논산(부여구간)간 도로공사구간내 발굴 조사	2000	〃	
〃	정항-서천간(서천송내리)도로공사구간내 진 입로 공사구간내 추가 발굴조사	〃	〃	
〃	공주 동부간선도로(금학동)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	〃	일부 보존
〃	부여-논산간 도로공사구간내(부여읍·가탑 리·왕포리·군수리)문화유적 발굴조사	〃	〃	
〃	아산 명암리 테크노컴플렉스 지방산업단지 내(3·11지점)문화유적 발굴조사	〃	〃	일부 이전
〃	서천화산리 수리넘어재 고분군 발굴조사	〃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보령 서해안고속도로구간 발굴조사	1999	〃	
한남대학교박물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건설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2,3,11지구)	〃	〃	
한서대학교박물관	안면도 고남리패총 발굴조사	1997	정비	
〃	서산 석유비축단지 조성부지 내 문화유적 시굴 및 발굴조사	1999	개발	
〃	해미읍성 옥사지 및 관리사 신축부지 문화 유적 발굴조사	2001	정비	

<표 8> 최근 6년간 매장문화재 발굴(시굴)조사 현황(2001. 10월 현재)

연도	계	학술	정비·복원	개발	보존
1996	17	1	4	10	2
1997	13 (8)	(1)	6 (1)	7 (6)	
1998	15 (8)		2 (1)	12 (7)	1
1999	28 (6)		5	21 (6)	2
2000	27 (8)		4 (1)	18 (7)	5
2001	5 (5)		3	2 (5)	
계	105 (35)	1(1)	24 (3)	70 (31)	10

위의 <표 8>를 살펴보면 순수 학술목적의 조사나 정비·복원을 위한 조사보다 개발에 따른 발굴조사가 70% 이상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고, 또한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9년과 2000년도의 경우에는 서해안고속도로, 천안-논산간고속도로의 개설과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발굴조사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발굴규모는 더욱 커졌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대규모의 국토개발과 지역개발이 추진되면서 대학박물관이나 문화재연구소 등에서 순수 학술목적으로 추진해오던 기왕의 학술발굴조사는 대부분 중단된 상태이며, 정비·복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일부발굴조사를 제외하고는 개발에 따른 구제발굴조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비·복원을 위한 발굴조사의 경우 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나 담당부서의 관심도에 따라 조사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있어 종합적인 계획 아래 일관성 있게 발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드문 실정이다. 개발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구제발굴의 경우 조사유적은 매우 많지만 조사된 유적이 정비보존으로 이어지는 예가 극히 드물고, 대부분 개발과정에서 훼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학술조사를 통하여 정비복원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개발에 따른 부수적인 문화재조사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가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종합적인 조사 계획의 수립을 통한 유적의 중요도와 조사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표조사에 뒤이은 후속조치가 시굴·발굴조사로 이어질 경우 절차의 간소화 혹은 지표조사시 시굴조사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는 기존에 주로 대학박물관이나 연구소 등에서 실시해 오던 것을 1997년부터 문화재 지표조사 전문기관을 승인하여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체계화하고 있다. 또한 지표조사 및 시굴·발굴조사를 전담하는 재단 혹은 사단법인을 인가하여 전문적으로 매장문화재를 조사하는 기구를 육성, 매장문화재의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와 관리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에 사적 제433호로 지정된 公州 長善里 土室遺蹟¹¹⁾이나 扶餘 鹽倉里 百濟古墳群¹²⁾등의 현장보존조치에서 볼 수 있듯이 서서히 매장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충청남도에서도 충남발전연구원과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등 재단법인과 국립문화재연구소를 비롯한 대학박물관이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협력해 나간다면 지역의 문화재 보존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1 충남발전연구원, 2001, 『公州 安永里 土室遺蹟 概略報告書』.(※現 安永里→長善里로 변경)

12 公州大學校博物館·扶餘文化財研究所, 2001, 『鹽倉里古墳群概略報告』.

제3장 문화재 지정 및 정비보존 관리현황

제1절 충청남도의 문화재 지정현황

1. 문화재 지정의 의미

우리나라의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인 국보, 보물, 사적, 사적 및 명승,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가 있고 시·도지정문화재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그리고 문화재자료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지정문화재의 종류는 문화재 각각의 특징에 따른 것이며¹³⁾, 비슷한 형태의 문화재가 서로 다르게 지정되는 것은 역시 그 중요도에 따른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역사적인 유물·유적 그리고 무형의 문화재가 공식 문화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수많은 유물·유적, 무형문화재 가운데 지정문화재로 선택되는 것은 그만큼 그 대상의 중요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지정을 받지 못한 문화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화재관리의 측면에서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는 정책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문화재가 보다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공식적인 문화재로 지정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지정문화재에만 치우친 문화재 정책은 비지정문화재의 관리를 소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설 관리인이 있는 일부 유교유적과 불교유적

13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문화재는 크게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구분된다. 유형문화재는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을, 무형문화재는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을, 기념물은 패총·고분·성지·요지·유물포함층과 동물·식물·광물·동굴을, 민속자료는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을 가리킨다.

의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지정문화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지정문화재조차도 그 활용 가치, 접근성, 인지도에 따라 관리대상에서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경우가 많다. 즉, 당국의 관심과 적절한 관리비용이 지원되지 않는 이상 어떤 문화재도 훼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중에서도 본 글에서 다루어질 매장문화재의 관리문제는 그 심각성이 훨씬 더하다. 대규모 공사가 각지에서 실시되면서 확인되지 않은 매장문화재가 통째로 사라지거나, 공사 이전에 조사 완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별도의 조치 없이 그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2. 충청남도의 지정문화재 현황

그렇다면 충청남도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얼마만큼의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을까.

다음의 <표 9>은 문화재 지정이란 제도가 생긴 이래 최근까지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역별 현황이다.

<표 9>에서 보면 전체 국가지정문화재는 2,728건이며, 그 중에서 보물이 1,315건으로 가장 많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서울·경북·경기·전남·경남·충남의 순이다. 국가지정문화재의 분포가 서울·경기나 경상도 지역에 집중된 것이 주목할 만하다.

2001년의 국가지정문화재는 1996년인 5년 전보다 약 9.5%가 증가하였다. 그 중 증가 비율면에서 가장 현격하게 늘어난 것은 사적 및 명승(50%)과 천연기념물(30.6%), 중요무형문화재(24.1%), 사적(8.8%)의 순이다.

충남지역의 경우는 표에 나타난 것처럼 19%가 증가하였는데, 그 중 보물이 가장 많이 지정되었고, 매장문화재로는 사적이 23.5% 증가하였다.

그러나 해마다 증가하는 국토개발에 따른 문화재 조사량 비하면 문화재의 지정비율이 턱없이 낮다. 공사율이 높은 만큼 조사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을

것은 분명하지만, 문화재 지정율이 낮은 것은 문화재조사보다 공사가 먼저 진행되는 지금까지의 폐단 때문이다.

<표 9> 2001년 12월 국가지정문화재 현황(()안은 1996기준, 경남과 울산은 분리)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합계
국보	121 (132)	3 (3)	3 (0)	1 (1)	2 (1)	• (1)	2	41 (33)	8 (7)	10 (8)	27 (23)	7 (4)	17 (15)	52 (50)	9 (11)			303 (288) 5.2%
보물	369 (385)	13 (12)	26 (22)	21 (19)	7 (7)	1 (1)	5	148 (123)	51 (48)	47 (37)	85 (71)	88 (76)	110 (95)	250 (244)	92 (97)	2 (2)		1,315 (1,239) 6.1%
사적	62 (61)	4 (6)	4 (3)	17 (16)	2 (2)	1 (1)	4	53 (49)	8 (5)	16 (10)	42 (34)	31 (28)	35 (28)	94 (92)	44 (51)	5 (2)		422 (388) 8.8%
사적 및 명승										1 (1)	1 (1)		3 (0)	3 (3)	1 (1)			9 (6) 50%
명승				1 (0)					1 (1)				3 (4)	1 (1)	1 (1)			7 (7) 0%
천연 기념 물	11 (11)	7 (7)	1 (1)	10 (6)			2	13 (10)	27 (24)	23 (21)	15 (12)	26 (21)	43 (39)	57 (45)	34 (31)	30 (24)	30 (30)	329 (252) 30.6%
중요 무형 문화 재	35 (33)	3 (4)		4 (3)	1 (1)			6 (4)	1 (1)	2 (2)	4 (4)	2 (1)	13 (15)	6 (6)	11 (9)	4 (4)	16 (15)	108 (87) 24.1%
중요 민속 자료	46 (46)		4 (4)		3 (2)		1	8 (8)	11 (10)	21 (21)	20 (18)	13 (12)	32 (31)	58 (57)	11 (12)	7 (7)		235 (228) 3.1%
계	644 (668)	30 (32)	38 (30)	54 (45)	15 (13)	2 (2)	14	269 (227)	107 (96)	120 (100)	194 (163)	167 (142)	256 (227)	521 (498)	203 (213)	48 (39)	46 (45)	2,728 (2,491) 9.5%

지방자치단체의 지정문화재는 경북, 경남에 이어 충남이 세 번째로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충남이 백제의 고도인 공주와 부여가 속해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1970년대부터 추진된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5년 전과 비교한 증가율로 보면 충남은 겨우 최하위를 면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지방지정문화재 현황은 다음의 <표 10>와 같다.

<표 10>시·도 지정 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 현황(()안은 1996년 자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합계
유형문화재	126 (86)	47 (23)	41 (41)	35 (32)	26 (23)	28 (25)	11	137 (121)	118 (107)	183 (166)	129 (123)	175 (140)	212 (155)	294 (258)	325 (289)	16 (14)		1,903 (1,603)
무형문화재	26 (9)	10 (9)	14 (12)	8 (7)	13 (10)	10 (3)	1	31 (11)	8 (5)	9 (6)	30 (18)	20 (15)	24 (19)	25 (23)	18 (16)	13 (10)		260 (173)
기념물	17 (15)	44 (36)	11 (11)	47 (34)	26 (22)	38 (31)	37	148 (133)	74 (71)	96 (86)	138 (89)	98 (80)	152 (126)	124 (102)	210 (148)	51 (45)		1,311 (1,093)
민속자료	28 (28)	1 (0)	4 (4)	2 (2)	7 (7)	2 (2)	0	9 (7)	4 (3)	10 (9)	13 (12)	33 (27)	31 (30)	120 (105)	20 (18)	8 (8)		292 (264)
문화재자료	9 (2)	8 (2)	33 (32)	17 (11)	25 (21)	41 (38)	17	98 (81)	107 (99)	29 (16)	285 (302)	141 (100)	176 (162)	401 (310)	283 (229)	1 (0)		1,671 (1,405)
계	206 (140)	110 (70)	103 (100)	109 (86)	97 (83)	119 (99)	66	423 (313)	311 (285)	327 (283)	595 (544)	467 (364)	595 (502)	964 (789)	856 (700)	89 (77)		5,437 (4,484)

국가 지정문화재와 지방 지정문화재를 모두 합하여 통계를 낸 것이 다음의 <표 11>이다.

<표 11> 국가지정문화재 및 지방지정문화재 합계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합계
계	850	140	141	163	112	121	80	692	418	447	789	634	851	1,485	1,059	137	46	8,165
(%)	(10.4)	(1.7)	(1.7)	(2.0)	(1.4)	(1.5)	(1.0)	(8.5)	(5.1)	(5.5)	(9.6)	(7.8)	(10.4)	(18.2)	(13.0)	(1.7)	(0.5)	(100)

한편, <표 12>처럼 충청남도의 지정문화재 현황을 보면 백제의 고도였던 부여와 공주 지역에 특히 많은 수가 집중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황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위의 표를 보면 공주는 국보와 보물의 부분에서 월등히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나 사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 주요무형문화재와 같은 부분에서는 지정문화재가 희박하다.

이처럼 유적과 유물의 양적인 차이에 기인하는 점도 있겠지만 문화재에 대한 정책적인 면과 함께 문화재에 대한 지역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와 맞물려 있다고 할 것이다.

<표 12> 충청남도의 지정문화재현황

	총 계	국 가 지 정									도 지 정					
		합계	국보	보물	사적	사적및명승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합계	소계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천안시	52	11	1	9	1	·	·	·	·	·	41	15	4	·	11	·
공주시	118	38	16	17	5	·	·	·	·	·	80	52	29	3	18	2
보령시	35	7	1	3	2	·	·	1	·	·	28	13	7	1	5	·
아산시	49	14	1	4	3	·	·	·	·	6	35	13	2	1	7	3
서산시	41	12	1	7	2	·	·	·	·	2	29	12	8	·	4	·
논산시	79	11	·	6	2	·	·	1	·	2	68	41	22	1	15	3
계룡 출장소	7	·	·	·	·	·	·	·	·	·	7	2	2	·	·	·
금산군	33	4	·	1	1	·	·	2	·	·	29	10	5	2	3	·
연기군	21	3	·	2	·	·	·	1	·	·	18	9	3	·	6	·
부여군	130	42	5	13	18	1	·	1	1	3	88	52	19	5	27	1
서천군	33	8	·	2	1	·	·	2	2	1	25	13	1	5	7	·
청양군	29	10	2	7	·	·	·	·	·	1	19	11	5	2	4	·
홍성군	43	9	·	4	1	·	·	·	1	3	34	17	3	2	9	3
예산군	61	12	1	5	2	·	·	1	·	3	49	21	10	1	10	·
태안군	19	3	·	1	·	·	·	2	·	·	16	12	5	2	5	·
당진군	28	8	·	4	·	·	·	1	2	1	20	12	3	·	9	·

<표 13> 충청남도 국가지정문화재(사적) 현황

지정 번호	명 칭	지정면적 (㎡)	소 재
4	부여성흥산성	120.916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산1-1
5	부여부소산성	963.900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산4
12	공주공산성	218.717	공주시 산성동2
13	공주송산리고분군	217.717	공주시 금성동 산5-1
14	부여능산리고분군	268.756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15
34	부여청마산성	416.621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산1-1
44	부여군수리사지	11.213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19
58	부여나성	634.056	부여군 부여읍 감창리 565
59	부여청산성	99.600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6
60	건지산성	164.417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산3
89	부여석성산성	755.643	부여군 석성면 현내리 산83
90	대흥임존성	937.686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산8
99	부여쌍북리요지	919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산30
116	해미읍성	194.083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16
135	궁남지	45.527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17
156	증산성	29.283	부여군 규암면 신성리 산86
231	홍주성	37.009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00-2
249	부여송국리선사유적지	15.967	부여군 초촌면 송국리 산24-1
301	부여정림사지	59.245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254
307	성주사지	29.084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316	서산보원사지	102.886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105
321	죽도앞바다 고려청자매장해역	707.000	보령시 주포면 송학리 죽도앞바다
333	공주학봉리도요지	27.160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산22-1외
334	공주석장리구석기유적	8.334	공주시 장기면 장암리 98외
373	부여정암리와요지	62.402	부여군 양길면 정암리 47외
393	논산노성산성	52.148	논산시 노성면 송당리 산1-1외 13필지

<표 14>충남의 시·도지정문화재(기념물) 현황

지정 번호	명 칭	지정면적 (㎡)	소 재
7	공주신관리 석실고분	1기	공주시 신관동 산14
9	보령오천성	13.805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10	남포읍성	11.478	보령시 남포면 읍내리
11	안흥성	38.658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28	홍성지석묘	4기	홍성군 구항면 태봉리 산171
30	예산산성	650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31	금강사지	31.666	부여군 은산면 금곡리
32	호암사지	19.605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33	왕흥사지	46.557	부여군 규암면 신리
34	임강사지	26.664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
35	공주남혈사지	2.916	공주시 금학동 88
36	공주수원사지	7.219	공주시 옥룡동 111외 2필
37	공주서혈사지	2.628	공주시 웅진동
38	공주주미사지	4.552	공주시 이이면 단미리 산2
39	공주구룡사지	10.599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40	부여산직리지석묘	4.876	부여군 초촌면 산직리 562
41	부여쌍북리도요지	331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641-5,10
42	공주공산성연지	1.164	공주시 금성동 58
43	전백제왕궁지	2.102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44	개태사지	5.412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29-1
45	부여태양리백제석실고분	1.191	부여군 구룡면 태양리 28
48	용정리사지	4.122	부여군 부여읍 용정리 35외 2필
50	동남리사지	16.569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211-1외 25필
53	동남리전천왕사지	8.341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산16-1외 2필
54	중정리전천왕사지	6.132	부여군 부여읍 중정리 552
56	황산성	38.083	논산시 연산면 표정리 산20
63	서산둔당리지석묘	1기	서산시 인지면 둔당리 189

지정 번호	명 칭	지정면적 (㎡)	소 제
67	배방산성	95.108	아산시 송악면 신흥리 산19
77	연기이성	6.645	연기군 전동면 송성리 산26
78	연기금이성	73.830	연기군 전동면 송성리 산86
79	연기운주산성	길이 3210m	연기군 전동면 청송리 산90외
81	우산성	길이 965m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산4-1외
83	금산백령성	길이 2.645m	금산군 남이면 역평리 산16
86	부여용정리소룡골백제건물지	5.838	부여군 부여읍 용정리 405-12외 4필
87	부여지선리고분군	3.305	부여군 외산면 지선리 산20외 2필
88	부여구아리백제유적	5.445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64번지
91	당진오천읍성	16.954	당진군 면천면 성상리 821-6
92	논산황화산성	56.702	논산시 등화동 산2
93	태안소근진성	6.347	태안군 소원면 소근리 산2
94	논산표정리고분군	55.626	논산시 연산면 표정리 산58-2
95	논산육곡리고분군	18.511	논산시 가야곡면 육곡리 산6-1외 4필지
96	서천남산성	27.020	서천군 서천읍 남산리 산22-1외
97	서천장암진성	74.198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산1-1외
98	부여보광사지	14.928	부여군 임천면 가신리 618-1외 19필지
99	공주옥녀봉성	36.348	공주시 옥룡동 산2-1
100	청양도림사지	12.545	청양군 장평면 적곡리 667외 3필
102	부여능안골고분군	182.159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75-7외 16필

3. 충청남도의 문화재 지정실태

지정문화재는 지정주체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하에 있으며, 또한 지정 주체에 따라 정부나 도의 재정 지원 아래 매년 정비·복원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지정문화재들이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

지 못한 상태에서 조금씩 훼손되고 있다. 이는 물론 모든 지정문화재를 완벽하게 정비·복원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문중이건 개인이건 분명한 소유주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문화재로 지정되면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보수를 비롯한 현상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으로만 관리되기 때문에 소유주체에 의한 개별적인 보수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적지 않은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유주체가 확실한 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관리는 가능한 한 개별 소유주체에 의한 직접관리를 권장하고 엄격한 기준 아래 선정된 일부분과 소유주체가 없는 것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관리해나가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 지정 당시 그 보수관리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보를 비롯한 사적, 지방문화재 등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다. 사적 등 단위 문화재 중 중요한 것은 별도 사업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현충사 및 칠백의총 등은 문화관광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공주와 부여는 무령왕릉 및 공산성, 부소산성 등 고도의 많은 사적지를 관리하기 위해 관리소를 설치하고 있다. 그 외 모덕사, 충의사, 추사고택, 유관순 아우내 관리소 등이 설치되어 있어 충분한 지원과 관심 속에서 보존·관리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여하튼 지정문화재는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된 극소수의 문화유산으로서 법적인 보호 아래 관리되고 있으므로 소멸의 위협에서 벗어나 있으며 중요한 문화재가 새로 발견되거나 지정되지 못한 문화재가 나중이라도 그 중요성을 인정받으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된다. 충남 지역에서도 매년 자체적인 평가를 거쳐 지방문화재를 늘려가고 있지만 좀더 지정 폭을 넓혀 가능한 한 많은 문화유산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 지정에 있어서 개인이나 단체가 신청한 대상에 국한하여 문화재 지정을 심의해 왔던 소극적인 행정에서 탈피하여 각 분야별로 현황을 정

확히 파악하고 그 가운데 주요한 자료를 선정하여 문화재로 지정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충청남도는 지정문화재가 전국의 9.6%로 경북, 경남, 전남, 서울에 이어 다섯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문화재 지정과정에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대상 유적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파악이나 철저한 고증 없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이다. 예를 들면 百濟寺址로 비정되어 사적으로 지정된 水源寺址¹⁴⁾, 南穴寺址¹⁵⁾, 東穴寺址¹⁶⁾ 등의 경우가 그러한 사례에 속한다.

수원사지의 경우는 『三國史記』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여 위치를 비정한 뒤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조영된 사지로 판명되었다¹⁷⁾. 그 외에 남혈사지¹⁸⁾, 동혈사지¹⁹⁾ 등도 역시 발굴조사 결과 백제사지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리고 乾芝山城²⁰⁾의 경우에는 지표조사조차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재로 지정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조사기관 혹은 연구자들 간의 연구성과의 교류가 부족한 것에 기인하지만 문화재에 대한 종합관리정책이 마련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즉, 중앙은 문화재청, 시·도는 문화재과에서 문화재지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비슷한 성격과 비슷한 가치가 있는 유적 중 다수가 시·군에 따라 지정되거나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와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을 토대로

14 公州大學校博物館・忠淸南道公州市, 1999, 『水源寺址』.

15 國立公州博物館・公州大學校博物館・公州市廳, 1993, 『南穴寺址』.

16 忠淸埋葬文化財研究院, 1998, 『公州 東穴寺址 試掘調査』.

17 公州大學校博物館, 1999, 『水源寺址』.

18 國立公州博物館・公州大學校博物館, 1993, 『南穴寺址』.

발굴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영된 것으로 밝혀짐

19 忠淸埋葬文化財研究院, 1998, 『公州 東穴寺址 試掘調査』.

발굴조사 결과 고려시대부터 조영된 것으로 밝혀짐

20 忠淸埋葬文化財研究院・忠淸南道舒川郡, 2001, 『韓山 乾芝山城』.

백제 주류성으로 비정되어 사적 제60호로 지정되었으나 고려시대 후기에 축조된 산성으로 발굴조사 결과 밝혀졌다.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2절 문화재 정비보존 및 관리현황

문화재 관리에는 문화재를 남겨진 그대로 보존하는 것 외에, 정비·복원의 방법이 포함된다. 자체보존 보다도 문화재 정비·복원은 더 많은 연구와 고증이 필요한 부분으로, 충남지역에서는 부여군에서 처음으로 문화재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정비·복원계획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기초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장 기초적인 지표조사, 발굴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유적의 시대, 성격, 규모, 중요성 등이 전혀 고려되지 못하였다.

둘째, 행정기관에서는 기본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채 무리하게 정비·복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재를 정비·복원할 경우 지상문화재나 매장문화재 모두 문화재를 중심으로 하고 그 주변의 역사문화환경과 지리 및 자연환경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대한 충분한 고찰과 종합적인 계획 없이 정비·복원이 추진되었다. 이는 대부분 행정처리상의 편의성이나 지역의 일시적인 구미를 맞추는 일일 뿐, 결과적으로 비효율적인 예산지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복원 후에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말았다. 최근 충청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역시 이와 같은 문제점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지금이라도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세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행정당국이 지정문화재의 보호에만 급급하여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보호대책은 거의 마련하고 있지 못한 것도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비지정문화재는 국가나 자치단체에 의해 지정되지 못한 문화재로서 문화유적 조사보고서류에 여러 차례 조사보고가 되고, 또 새롭게 발견되기도 하는 등 지역에 산재해 있지만, 아직 정확한 현황도 파악되지 못한 형편이다. 또한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재의 경우(사지, 요지 등)는 비지정문화재가 대부분이다. 비지정문화재가 지정문화재에 비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지역민들의 의식에는 비지정문화재가 지역개발의 장애물로 여겨져 개발과정에서 무참히 파괴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설사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개인이 자의적으로 전답 혹은 임야로 사용하고 있는 등 지속적인 훼손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같은 지역에 대한 문화유적분포 지표조사에서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유적지를 찾아가 보면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경우를 쉽게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비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대책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으며 추후 별도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언론과 방송의 영향으로 일반인들 사이에 문화재를 가치있게 생각하고 보존하려는 인식이 점차 고조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무관심 속에 많은 문화재가 훼손·인멸되어가고 있다. 특히 당장에 직접적인 이익이 되지 못하는 매장문화재는 오히려 지역개발의 장애로 인식되고 있어 개발과정에서, 가장 보호하고 보존해야할 지역주민들에 의해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농로의 개설, 개간, 농지정리, 건물신축, 도굴 등으로 고분, 고인돌, 요지 등은 최근에 급속히 파괴·소멸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문화재보호법은 오히려 공사 도중 발견되는 매장문화재를 철저히 파괴하게끔 하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공사과정에서 문화재가 노출되면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영세한 사업자들에게 발굴조사는 예상치 못한 부담이므로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소리소문없이 완전하게 파괴시켜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장비를 이용한 공사일 경우 ‘문화재의 노출’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충남지역은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발굴조사 된 문화재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발굴조사가 완료된 유적은 그 가치의 중요도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록보존을 끝으로 모두 사라진다. 발굴된 유물은 국가귀속으

로 처리되어 국립박물관이나 대학박물관 등에 전시 수장되고 있다. 여기에서 매장문화재가 “관리”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지정문화재가 되는 수밖에 없다. 지정된 매장문화재는 그 역사적 가치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이나 지방 지정문화재인 기념물로 지정되어 관리된다. 충청남도의 경우 이러한 매장문화재 관리를 위한 특별한 대책은 없고 다만 정비·복원 및 보수비로 책정된 비용의 일부가 지출되고 있을 뿐이다.

<표 15>충청남도 각 시·군의 년도별 문화재 정비사업 추이(()은 정비 건)

	1997년 (193)	1998년 (178)	1999년 (174)	2000년 (181)	2001년 (129)	계 (855)	전체비율 (%)
천안시	236,030	599,000	335,400	420,526	730,000	2,320,956	1.9
공주시	6,488,385	4,858,571	6,463,143	4,902,854	6,740,000	29,452,953	24.3
보령시	821,010	686,428	480,500	1,235,418	664,000	3,887,356	3.2
아산시	1,910,142	1,484,000	1,760,229	1,956,813	1,710,000	8,821,184	7.3
서산시	578,631	665,714	587,607	585,714	940,000	3,357,666	2.8
논산시	1,811,448	1,643,357	1,546,786	3,457,893	2,084,000	10,543,484	8.7
계룡 출장소	200,000	64,000	1,308,357	180,000		1,752,357	1.4
금산군	776,315	592,856	788,125	660,428	398,000	3,215,724	2.6
연기군	228,030	330,000	446,000	540,000	284,000	1,828,030	1.5
부여군	3,636,837	6,335,714	10,770,622	5,531,825	6,222,000	32,496,998	26.8
서천군	1,360,713	1,185,714	510,429	400,114	290,000	3,746,970	3.1
청양군	350,000	402,000	795,329	316,856	646,000	2,510,185	2.0
홍성군	1,308,841	1,729,399	295,750	1,336,545	1,150,000	5,820,535	4.8
예산군	950,282	878,000	1,208,414	1,469,437	1,291,000	5,797,133	4.8
태안군	910,000	681,000	962,650	181,182	160,000	2,894,832	2.4
당진군	265,470	754,000	826,144	784,000	260,000	2,889,614	2.4
계	21,832,134	22,889,753	29,079,485	23,959,605	23,569,000	121,335,977	100

<표 16>충청남도 종별 문화재 정비사업 예산 지원 현황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계	비율(%)
국 보	1,971,142	570,000	656,685	231,427	470,000	3,899,254	3.0
보 물	3,326,305	1,542,399	1,370,451	2,255,708	2,083,000	10,577,863	8.8
사 적	5,539,283	9,095,713	6,272,143	9,189,094	13,560,000	43,656,233	35.9
중요무형문화재	600,000	300,000		80,000		980,000	0.9
중요민속자료	504,628	389,100	482,931	303,555	1,380,000	3,060,214	2.6
도지정문화재	6,036,220	5,307,400	11,307,225	6,407,980	3,854,000	32,912,825	27.1
문화재자료	1,761,450	2,272,000	1,039,250	2,182,000	1,451,000	8,705,700	7.2
천연기념물	92,856	507,141	190,000	342,854	270,000	1,402,851	1.2
기 타	2,000,250	2,906,000	7,760,800	2,966,987	501,000	16,135,037	13.3
계	21,832,134	22,889,753	29,079,485	23,959,605	23,569,000	121,329,977	100.0

한편 충청남도의 문화재정비사업을 살펴보면 위의 <표 15>, <표 16>과 같이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5년 동안 매년 100건 이상의 정비사업에 200억~300억 정도의 사업비가 지출되고 있다. 그 중 사적과 도지정문화재의 정비·복원비로 집중 투자되고 있다. 또한 지역적인 배분으로는 공주와 부여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재의 분포가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일정지역에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유적의 중요성에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충남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매장문화재는 총 2,064건이다(부록 참조). 그러나 지하에 묻혀있는 매장문화재의 특성상 현재 확인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최근 국토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서 확인되는 유적의 수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한편으로 현재 조사되어 기록된 유적조차도 일부는 그 성격이 정확하다고 할 수 없으나 최근 문화유적분포지도를 제작

하면서 그 내용이 충실히 기록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7>충청남도 분야별 문화재 정비사업 예산 집행 현황(1997~2001년)
(단위:백만원)

구 분	50미만		50-100		100-200		200이상		계		비 고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총 계	353	8,825	201	15,075	144	21,600	155	31,000	853(100)	76,500(100)	
기 초 조 사	1	25	2	150	2	300	3	600	8 (0.9)	1,075 (1.4)	
보 상	5	125	15	1,125	19	2,850	37	7,400	76 (8.9)	11,500 (15.0)	
유적보수정비	309	7,725	170	12,750	110	16,500	79	15,800	668 (78.3)	52,775 (69.0)	
부대시설조성	38	950	14	1,050	13	1,950	36	7,200	101 (11.9)	11,150 (14.6)	

<표 17>에서와 같이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의 분야별 문화재 관리에 대한 예산집행현황을 기초조사, 보상, 유적보수정비, 부대시설조성의 4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유적보수정비에 대한 집행이 가장 두드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가장 먼저 행해져야 할 기초조사의 경우는 4분야 중 건수나 사업비 면에서 가장 저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건수로 보았을 때 유적보수정비가 668건인데 반해 기초조사는 8건으로 전체 853건 중에서 1%의 비율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보여주기식의 문화정책의 결과로 기초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부족한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에 지나지 않는다.

충청남도 내에 분포하고 있는 약 2,064건의 매장문화재 중 사적지는 26건, 기념물 47건으로 전체 유적 중 3.5 %로 극히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적 및 기념물 중에도 단지 지표조사만으로 지정된 유적이 있어 아직까지도 그 실체가 불분명한 것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유적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적인 학술발굴조사를 통하여 그 유적의 성격을 정확히 밝혀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개발에 따른 발굴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문화재는 개발과 함께 사라지거나 국가 혹은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관리된다. 매장문화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를 거쳐 문화재로 지정 보존된다.

첫째, 중요한 유적으로 판단되어 모든 공사를 중지하고 유적 전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현장에 그대로 보존관리되는 경우,

둘째, 중요하기는 하지만 공사의 중요성도 인정되어 다른 곳으로 유적 전체를 이전·복원하는 경우,

셋째, 유적의 일부가 중요성이 인정되어 이전·복원하는 경우,

넷째, 유적의 중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록으로 보존하고 유적이 훼손되는 경우로 구분된다.

현재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유적이 기록보존을 끝으로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발굴기관의 입장에서 유적에 대한 최소한의 이전·복원계획조차 없이 발굴조사에 임하는 과정에서 필히 재고해야 될 부분이다.

또한 개발과정에서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현장보존조치가 이루어지거나 이전·복원 조치가 내려진 유적의 경우에도 종종 문제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유적들은 사전 계획 속에 있던 것이 아니고 갑자기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취하기가 쉽지 않다. 그 때문에 오랜 기간 방치되거나 무관심으로 그 보존의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은 법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매장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제3절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대책

1. 매장문화재 관리의 법률적 검토

최근 개발에 따른 문화재조사가 증가하게되자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

면서 또한 문화재의 보존방안에 대해서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조의 2항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매장문화재 보호의 필요성과 함께 문화재 지정제도에 의한 보호,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의 보호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13조 2항을 살펴보면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항은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2001년도 개정 문화재보호법령을 살펴보면 매장문화재의 관리를 위해서 일부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는데 문화재보호법(2001.3.28 법률 제6443호), 문화재보호법시행령(2001.6.30, 대통령령 제17279호),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2001. 9.8, 문화관광부령 제53호)에서 그 변화내용을 살펴 볼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발굴비 지원 확대(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1조의 2)

- 건설공사 시행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한 결과 중요 유적이 확인되어 문화재청장이 그 지역의 보존을 지시함에 따라 사업시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에 소요된 발굴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설공사 중 지표조사 실시대상 구체화(문화재보호법시행령 43조의3, 동법시행규칙 제59조의2)

-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설공사 중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거나 문화유적과 근접한 지역, 문헌 등에 의하여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그리고 고도 및 지형여건상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로 구체화

▷가 지정 대상문화재 확대(문화재보호법 제58조제2항)

- 국가지정문화재 뿐만 아니라 시·도지정문화재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 이를 가 지정하여 보호할 수 있

도록 함

▷사유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토지 등 수용근거 마련(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1항)

- 종전에는 문화재 주변정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문화재중 국유 또는 공유문화재에 한하여 그 보호구역 내의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던 것을 동등한 가치를 가진 사유문화재의 경우에도 주변정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내의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

▷문화재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문화재보호법 제81조, 제82조)

-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외의 지정 및 가지정문화재를 손상·절취·은닉(제81조)하거나, 도굴 등의 죄(제82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매장문화재 발굴전담기구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문화재보호법제48조의4)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의 조사·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조사 전문기관의 설립을 적극 육성·지원하도록 함

이러한 법령의 보완은 매장문화재의 보존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매장문화재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사적지 혹은 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문제는 있다. 문화재로 지정되는 경우 현장 보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전·복원시키도록 조치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시급한 정비보존 조치가 요구되는 데도 오랜기간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공주에서 부여까지 백제 큰길을 개설하다가 확인된 공주 艇止山遺蹟²¹⁾의 경우 백제 제사유적으로 그 중요성이 입증되어 시도기념물 147호로 지정되었으나 아직 그 정비·복원에 대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최근 사적 433호로 지정된 공주 長善里 土室遺蹟²²⁾이나 현장보존 조치된 부여 鹽倉里 百

21 國立公州博物館, 1999, 『艇止山』.

22 충남발전연구원, 2001, 『公州 安永里 土室遺蹟 概略報告書』.(※現 安永里→長善里

濟古墳遺蹟²³⁾ 등도 그 보존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개발 과정에서 발견된 유적에 대한 처리는 아직까지 법적인 대책마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정비·복원에 대한 소요예산의 준비나 유적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여 유적의 보호 및 관리 차원에서 여름의 홍수, 겨울의 동해를 견디어내기가 어려워 2~3년 정도 경과하면 유적의 본래 모습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훼손이 심하게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로 현장 보존되거나 사적 및 기념물 등으로 지정된 시점부터 정비·복원 계획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최소한의 보존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 관련 긴급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고 보존조치를 위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2. 충청남도의 문화재 관리 행정

충청남도의 문화정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자치문화국의 문화관광과가 있다. 문화관광과에는 문화관광, 예술진흥, 문화재, 관광홍보, 관광개발의 5개의 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 중 문화재계는 문화재담당의 사무관 1인과 6인의 계원 및 별정 5급의 전문위원 1인이 문화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인원의 구성과 직위구조로서는 충청남도내의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기도 벅차 문화재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 등의 정책적인 연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각 시·군에도 문화공보실,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과 등의 부서를 설치하여 문화재 및 지역문화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문화재 담당은 문화예술, 문화재, 문화관광, 문화체육 계에서 담당하고 있다.

로 변경)

23 公州大學校博物館・夫餘文化財研究所, 2001, 『鹽倉里古墳群概略報告』.

<표 18> 충청남도 문화재 담당 현황(2001. 10 현재)

	시·군별	담당과	담당계	직원
	충청남도	문화관광과	문화재계	5(별1)
1	계룡출장소	총무과	예산	
2	천안시	문화체육담당관	문화예술	6(별1)
3	공주시	문화관광과	문화재	6
4	보령시	문화공보담당관	문화예술	4(별1)
5	아산시	문화관광과	문화재	3(별1)
6	서산시	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	1(별1)
7	논산시	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	2
8	금산군	문화공보실	문화관광	4
9	연기군	문화체육과	문화관광	4(별1)
10	부여군	문화관광과	문화재	5(학1)
11	서천군	문화공보실	문화체육	4(별1)
12	청양군	문화공보실	문화관광	2(별1)
13	홍성군	문화공보실	문화재	3(별1)
14	예산군	문화공보실	문화관광	4(별1)
15	태안군	문화관광과	문화체육	5
16	당진군	문화공보실	문화체육	5(별1)

문화재 업무는 문화재보존관리, 매장문화재 지표·시굴·발굴조사, 사적·지방문화재지정, 정비보존계획 등 다양한 업무가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업무는 행정업무로 일원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화재에 대한 전문 분야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지자체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다만 부여군만이 학예연구사 1인을 두고 있다.

한편 별정직으로 1인씩을 두고 있지만 모두 문화재와 관련된 전문 연구직이 아니며, 공주 등 4개 시·군은 그나마도 두지 않고 행정과 건축직이 문화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또한 순환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어서 문화재의 전문성이 전혀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직제 및 인력구조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보존·관리되어야 할 문화재의 특성을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연구, 보존관리를 위

한 보수·정비계획, 유적의 정비·복원을 통한 활용계획 등 정책적 대안은 아직까지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고 다만 현상유지의 차원에서 보존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으로 그나마 다행인 것은 건조물 등의 유형문화재의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문화재 수리 및 문화재 보수를 하고 있어서 지자체의 연도별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계획적인 문화재의 정비·복원사업은 아직까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부분은 우선 순위에서 후위에 해당된다. 앞으로 해당 문화재의 실질적인 활용 차원에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3. 향후 대책

최근 수년간 매장문화재는 지역 개발이란 명목 하에 마구잡이로 파괴되고 있다. 이러한 파괴의 배경으로 지적되는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①행정당국의 무관심, ②지역 주민의 무지, ③연구기관과 연구자의 부족, ④문화재보호법상의 문제점 등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향후 대책 또한 이 기본적인 문제점의 개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먼저, 문화유산의 개념 및 매장문화재의 개념을 설정하고, 그 대상과 범위, 종류를 설정하여야 한다. 그 기반 위에 보존방안 및 중점과제를 수립하고 구체적인 방안과 제도적 장치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 파괴를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대책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는 우리 손으로 가꾸고 보존해서 후대에 물려주어야 한다는 의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점을 지역주민에게도 인식시키고, 유적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리를 담당하여야 한다. 또한 문화재는 보존하고 가꿈으로써 실질적인 이익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문화재관리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대책은 훼손되어 가는 문화재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특히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더욱 절실하다. 따라서 비지정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① 먼저 문화유적분포지도제작을 완료해야 한다. 문화유적분포지도를 통하여 중요도 높은 것과 활용가치가 높은 것을 제시한다. 또한 공사계획을 세움에 있어 기본적인 자료로 제공해 사전에 문화재의 파괴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

② 공사 중 출토유물, 유적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지역개발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발굴조사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여기에서 발굴되는 유물의 이전·복원 장소를 물색하고 추후라도 반드시 일정장소에 복원해야 한다는 이전 복원을 법제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 자치단체의 적극적 노력 및 재원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시행청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택지개발 공장부지 등에는 반드시 공원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곳에서 공사 중 발견된 매장문화재를 전시 또는 복원하는 방법으로 일부 공간에 문화벨트를 조성한다.

③ 지정 문화재의 경우에는 정비·복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며, 관리부서의 규모를 확대한다. 관리당국에서는 전문직 인력을 확보하여 시·군 및 도에 배치하고, 기존에 설치된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관련공무원의 경우 보직이 순환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관련 행정업무의 공백기를 보완·지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야만 지속적이며 원활한 문화재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④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각 시·군 차원의 문화재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주, 부여 등 고도를 중심으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내포지역의 수많은 문화재 보호와 활용을 위해 종합정비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

⑤ 민간차원에서 문화재 보호운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각

시·군마다 문화재 보존·보호를 위한 상설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다만, 자율적인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화원, 혹은 향토사연구회 등의 기구 및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문화재는 지역민의 손으로 보호한다는 취지를 담아야 한다.

마을 단위로 자체적인 보호·관리를 위한 문화재보호운동을 펼치게 하고 그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며, 이를 위해서는 문화자원을 마을의 생산품 등과 연계시켜 관광 혹은 활용가능성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 및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데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활성화하여 문화재 접촉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무원 연수교육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역문화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도 필요하다. 지역민을 자발적인 보존·보호운동에 참여시켜 봉사활동 도우미를 장려하고, 문화재 트러스트 등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공공기관과의 유대를 강화시킨다면 문화재 보호의 한 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근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문화재해설사 체제의 정립과 이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각처에 배치하여 문화재의 보존·보호·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⑥ 발굴조사된 매장문화재의 국가 및 지방문화재로의 지정을 늘려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지 못한 문화재의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보존관리를 위한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⑦ 문화재의 중요도를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지표조사 등을 통하여 학계에 발표되거나 세간에 널리 알려진 비지정문화재 등을 분석하여 그 중요도를 살펴보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⑧ 문화재보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능력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행정 우선의 정책에서 문화재의 특수성을 살린 전문적인 차원의 새로운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행정과 전문연구, 기술이 종합된 구조로서 매장문화재의 조사연구 - 정비·복원 - 관리활용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문화재 발굴조사를 통한 연구성과가 바로 정비·복원공사에 연계되어 충실한 정비·복원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정비·복원을 통하여 보존되는 문화재를 관광·산업자원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4장 결론

제1절 결론

최근 석굴암·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창덕궁, 수원 화성, 경주 역사 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 등 우리나라 7대의 문화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아주 의미있는 성과를 얻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가 보유한 문화유산이 세계적인 것으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철저하게 보존·관리해서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도 함께 주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문화재의 관리는 개인의 노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문화재관리에 대한 연구는 고고학자, 혹은 일부 전문가에 의해 거론되고 있을 뿐으로 전문성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문화재관리학의 정립과 학문 영역의 확대는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며 그나마 최근 한국전통문화학교를 비롯한 각 지역의 대학에서 문화재관리학, 문화재보존과학과 등이 개설되고 있어서 한편 다행으로 생각된다.

충남지역은 백제의 고도인 공주와 부여가 있으며, 공주 석장리 구석기유적을 비롯하여 부여 송국리 청동기시대유적 등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수많은 매장문화재가 산재해 있어 이에 대한 보존·관리의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매장문화재를 보존·관리하기 위해서는 개발로 인한 유적의 파괴를 방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훼손의 방지를 위한 이상적인 행정 절차는 각 개발업자가 자발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사전에 문화재조사를 신청하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문화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최대한의 문화재보존이 이루어진다면 바랄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개발에 대한 허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법적 강제성을 갖는 환경영향평가가 반드시 시행되어 그에 따라 문화재의 보

존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발굴을 포함한 고고학적 지표조사가 공사 착수 전에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 또한 개발과정에서 중요한 문화재가 확인되고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개발을 대체할 수 있는 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파괴위험에 처한 유적의 가치가 개발의 필요성보다 높은가를 판단해서 처리되어야 한다.

한편 문화재의 정비·복원방법과 정비대상유적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도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문화재를 정비·복원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원상에 가깝게 복원하는가와 주변의 경관을 문화재와 어울리게 정비하는가에 있음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이에 맞는 유적정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유적주변환경을 포함한 지역환경, 유적지의 부지분석, 자연·인문·사회조건의 조사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의 충실한 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재관리의 개념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문화재관리란 문화재를 단순히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벗어나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유적의 보호운동, 문화재관련법 연구, 학술회의 개최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문화유산의 훼손을 야기하는 국토개발사업은 도로건설, 다목적댐건설, 공단 조성, 택지조성, 경지정리, 건축, 개간 등 다양하며 그 외에도 도굴, 도난, 화재 등으로 인한 훼손도 많다. 매장문화재의 도굴은 지금도 각 지역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발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되지만 사전에 문화유산과 관련하여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주 적다. 이러한 시점에서 조상들에 의해 남겨진 훌륭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던져진 과제이다. 수많은 이들 과제 중에서도 문화유산의 실태파악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문화유산을 찾아내고 파괴 위험에 처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노력과 더불어 일반인의 문화유산에 대한 의식을 제고시켜나가면서 전통문화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들어서 문화재는 관광자원이며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문화적 자긍심이다. 지리적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중심에 해당하는 충남지역은 많은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이를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하느냐가 21세기 문화의 세기의 주역으로서 충청남도가 도민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관건일 것이다.

문화관광부의 자료를 살펴보면 문화재 행정에 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져 있을 뿐 문화재정책의 큰 틀조차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문화재청이나 각 시·도에서 필요한 중간단계의 실무 지침서조차 없다. 이러한 문화재정책의 부재는 주먹구구식 중구난방의 문화재 정비복원 등으로 재정의 낭비와 문화재의 파괴를 불러오고 있다.

따라서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우선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임시 대안으로 제시하여 문화재 정책이 큰 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번의 연구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문화재 조사, 행정, 관리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관계자 및 전문가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서 조속히 문화재 관리와 그에 대한 정책수립의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

제2절 제안

그동안 충청남도의 문화재 관리실태와 관련하여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단기적 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방안이 제시된 적이 있었으나 그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심도도 낮은 형편이고 해결책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서 지역사회에서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동안 문화재의 보존관리 정책에 대하여 다양하게 제시된 의견을 참조하면서 우선적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1. 단기 추진 방안

▷문화재 조사 연구에 있어서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기초조사가 시급히 실시되어야 한다.

문화재의 체계적인 연구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현황파악이 중요하다. 지정문화재는 그동안 행정차원에서도 중점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소유권 또한 일반 개인의 소유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훼손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조사가 시급하며 그 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재의 정비·복원은 종합적인 역사문화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주요유적의 정비·복원이 그 문화재 자체만이 아닌 주변환경의 보전과 맞물려 있어서 종합적인 역사문화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문화재를 정비·복원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원상에 가깝게 복원하는가, 주변의 경관을 문화재와 어울리게 정비하는가에 있다. 이에 맞는 유적정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충실한 기초조사가 필요한데, 유적주변환경을 포함한 지역환경조사, 유적지의 부지분석조사, 자연조건, 인문사회조건조사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의 기초조사가 된 이후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 관리대상의 문화재와 정비·복원 대상의 문화재를 구분하여 보다 중점적인 사업 대상을 우선적으로 선별, 정책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문화재의 중요성이지만 지역적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와 교육 및 관광산업자원으로의 활용가치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정비·복원사업의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정비·복원방법, 정비대상유적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정비·복원 사업에 있어서 전문가의 자문이 반드시 책임제로 실시되어야 한다.

유적의 올바른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비·복원을 실시한 사업자와 정비·복원의 자문을 맡은 전문가가 대상유적의 정비 및 복원 후까지 책임을 가지고 사업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유적의 발굴을 담당한 기관에서도 정비·복원에 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화재발굴기관인 전문법인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단순히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용역을 수주하여 자체 운영하는 정도로서의 발굴기관의 기능으로는 문화재에 대한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전문법인에 일정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유능한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문화재 보존, 정비에 대한 정책수립, 문화재조사, 문화유산의 활용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행정직을 전문직화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 지적되어 온 사항이지만 문화재관리인원의 양성을 통하여 각 시·군의 문화재 담당자를 전문가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문화행정직의 직급 및 위상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화재 전문인력의 양성은 부여의 한국전통문화학교와 함께 각 지역의 대학교에 설치된 문화재관리학과 혹은 문화재보존과학과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행정기관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중장기 추진 방안

▷문화재 보존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그동안 국토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그에 수반된 문화재 발굴조사 역시 수없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발굴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문화재 중 중요한 가치로 인정되어 보존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에 보존되어 남기지는 않더라도 이전·복원하거나 일부라도 이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 비록 유적의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수많은 문화재가 단지 기록으로만 남고 사라지는 것은 학술적으로나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이라도 개발과정에서 조사되는 문화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세워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보존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문화재의 일방적인 훼손을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충청남도에는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을 가장 우선시하여 문화재의 조사·연구 및 정비·복원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충청남도 내의 어떤 유적을 어떻게 조사해서 어떻게 복원·정비하고 관리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 차원에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그에 따라 각 시·군의 계획이 수립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문화재의 체계적인 연구와 보존·관리를 담당할 종합기능을 갖춘 연구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현재 충청남도를 비롯한 각 시·군 등 행정기관의 문화재 관련 조직으로는 문화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획·연구 등을 추진하기는 요원하다. 또한 각 대학교 등 교육기관에서조차도 문화재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일례로 충청남도의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 역시 백제역사재현단지에 대한 관리와 개발에 집중되어 있을 뿐으로 연구 기획 등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문화재의 조사·연구 - 정비·복원 - 관리·활용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기구로서 종합연구와 관리기능까지 갖추어진 문화재관리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전담기구를 설치함으로써 현재 현상유지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정보시스템까지도 구축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문화재 전담기구는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과 그에 따른 문화재조사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중간 조정 기구로서의 역할과 함께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능과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新增東國輿地勝覽』

『大東地志』

忠清南道, 1991, 『文化遺蹟總覽』(城郭·官衙篇).

忠清南道, 1993, 『百濟文化圈特定地域宗合開發基本設計報告書』.

忠清南道, 1997, 『文化財大觀』.

忠清南道, 1996, 『百濟歷史消現團地造成調查研究報告書』.

忠清南道, 1997, 『충청남도개도백년사』.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86, 『忠南地域의 文化遺蹟』(第 1輯 - 天原·舒川·保寧·禮山·燕岐 -).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90, 『忠南地域의 文化遺蹟』(第 4輯 - 論山郡篇 -).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91, 『忠南地域의 文化遺蹟』(第 5輯 - 牙山·溫陽市篇 -).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92, 『忠南地域의 文化遺蹟』(第 6輯 - 唐津郡篇 -).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93, 『忠南地域의 文化遺蹟』(第 7輯 - 天安市·天安郡篇 -).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95, 『忠南地域의 文化遺蹟』(第 8輯 - 靑陽郡篇 -).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95, 『忠南地域의 文化遺蹟』(第 9輯 - 禮山郡篇 -).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96, 『忠南地域의 文化遺蹟』(第 10輯 - 舒川郡篇 -).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97, 『忠南地域의 文化遺蹟』(第 11輯 - 保寧郡篇 -).

高麗大學校埋藏文化研究所, 1996, 『唐津郡 埋藏文化財 分布調査』.

國立文化財研究所, 1990외, 『전국문화유적발굴조사연표』(중보판).

—————, 1998, 『文化遺蹟分布地圖』, 天安市.

忠南大學校博物館, 1998, 『文化遺蹟分布地圖』, 扶餘郡.

公州大學校博物館, 1998, 『文化遺蹟分布地圖』, 公州市.

公州大學校博物館, 1999, 『文化遺蹟分布地圖』, 保寧市.

公州大學校博物館, 2000, 『文化遺蹟分布地圖』, 泰安郡.

忠南發展研究院, 1998, 『文化遺蹟分布地圖』, 瑞山市.

忠南發展研究院, 1999, 『文化遺蹟分布地圖』, 論山市.

忠南發展研究院, 2000, 『文化遺蹟分布地圖』, 舒川郡.

忠南大學校百濟研究所, 1980, 「論山郡 管内 古代 山城址 分布調査」, 『百濟研究』11집.

- 忠南大學校百濟研究所, 1981, 「瑞山市 管内 古代 山城址 分布調査」, 『百濟研究』 12집.
- 忠南大學校百濟研究所, 1983, 「天安市및天原郡 管内 古代 山城址 分布調査」, 『百濟研究』 14집.
- 忠南大學校百濟研究所, 1984, 「禮山郡 帶内 古代 山城址 分布調査」, 『百濟研究』 15집.
- 忠南大學校百濟研究所, 1984, 「保寧郡 管内 古代 山城址 分布調査」, 『百濟研究』 15집.
- 忠南大學校百濟研究所, 「燕岐郡 管内 古代 山城址 分布調査」, 『百濟研究』 16집, 1985.
- 윤용혁, 1995, 「백제문화권개발과 충남발전」, 『열린충남』 창간호, 충남발전연구원.
- 박서호, 1996, 「충남 백제권 개발전략」, 『열린충남』 제 2권 제 4호, 충남발전연구원.
- 이남석, 1996, 「백제문화권개발의 현황과 과제」, 『열린충남』 제 2권 제 4호, 충남발전연구원.
- , 1997,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연구현황과 과제」, 『열린충남』 제3권 제 4호, 충남발전연구원.
- 여흥기, 1996,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 『열린충남』 제 2권 제 4호, 충남발전연구원.
- 이강승, 1997, 「백제문화권개발의 현황과 과제」, 『열린충남』 제 3권 제 4호, 충남발전연구원.
- , 1997, 「문화재 지표조사의 시행현실과 문제점」, 『매장문화재 발굴 반세기』, 97문화유산의해 조직위원회·국립문화재연구소.
- 서정석, 1997, 「백제문화연구와 개발의 현주소」, 『열린충남』 제 3권 제 4호, 충남발전연구원.
- , 1999,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과 과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 심광주, 1996, 「국토개발과 문화재보존의 현황과 과제」 『국토개발과 문화재보존』, 한국토지공사.
- 박원석, 1995, 『국토와 토지정책』, 범문사.
- 김희태, 1991, 「일본의 문화재관리와 유적 보전」 『전남문화재』 4.
- 호남문화재연구원, 1999, 『호남의 문화유산 그 보존과 활용』, 학연문화사.
- 한국토지개발공사, 1994, 『문화재실무편람』.